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과제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Tel: 02-3156-7094 / e-mail: hjsong@kwidmail.re.kr)

## 재혼 부부를 둘러싼 상속 문제와 법적 개선방안의 모색

### 초 록

- 재혼 부부의 상속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재혼부부는 부부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의 자녀 특히 전혼자녀들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재산과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며, 특히 전혼자녀와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특히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서 더 취약할 수 있음.
  - 법률혼 재혼부부와 사실혼 재혼부부에 있어 나타나는 이슈와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들의 경우 전혼자녀들과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사망 후의 불안정성이 문제됨.
-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1. 배경 및 문제점

- ☑ 한국 사회는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수명 증가에 따라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음.

〈표 1〉 혼인 및 재혼 건수

(단위: 건)

	총 혼인 건수	총 재혼 건수*	재혼남성	재혼여성	총 혼인 건수 중 재혼 건수의 비율
1982년	397,468	31,118	26,422	17,242	7.8%
1985년	384,686	36,360	30,430	21,566	9.5%
1988년	410,708	44,364	35,838	27,966	10.8%
1991년	416,872	44,061	33,685	29,639	10.6%
1994년	393,121	49,133	36,317	35,595	12.5%
1997년	388,960	57,071	41,405	43,799	14.7%
2000년	332,090	59,639	43,370	48,132	18.0%
2003년	302,503	67,507	49,988	55,585	22.3%
2006년	330,634	73,950	55,563	59,661	22.4%
2009년	309,759	72,830	53,770	58,825	23.5%
2012년	327,073	69,998	51,114	56,488	21.4%
2015년	302,828	64,388	46,338	52,747	21.3%
2016년	281,635	59,907	43,286	48,899	21.3%

출처: 송효진 · 김은지 · 배인구 · 김연재(2017:3-4).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에서 재인용

\* '총 재혼 건수'는 '재혼 남성 + 초혼 여성', '초혼 남성 + 재혼 여성', '재혼 남성 + 재혼 여성'을 합친 수임

- ▶ 재혼 부부의 상속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 사실혼 관계인 경우 부부간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양태가 나타남. 특히 황혼재혼에 있어 잔존한 고령의 사실혼 배우자(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생계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높음.
- ▶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인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1) 법률상담사례 조사 개요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 및 법적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협력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접수된 상담사례 중 재혼가족이 부부 재산문제로 비교적 자세하게 상담해온 질적 분석이 가능한 사례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총 86건을 조사·분석하였음.

- ▶ 총 86건의 사례 중 내담자가 재혼부부 당사자인 사례가 51건, 재혼 부부의 자녀(전혼자녀 및 재혼자녀)인 사례는 33건, 재혼부부의 부모가 내담자인 사례는 2건이었음.
- ▶ 분석 대상 사례 중 내담자가 재혼부부 당사자인 사례 51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4건(27.5%), 70대 10건(19.6%)로 50대 이상이 많은 분포를 보였음. 80대도 3건이며, 내담자가 재혼 당사자의 자녀인 경우가 33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분석대상 상담사례 86건 중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인 경우는 63건,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23건으로 나타남.
- ▶ 전체 분석대상 상담사례 86건 중 상담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재혼 배우자 간 재산 문제’가 20건, ‘재혼부부와 자녀(계부모·친부모와 전혼자녀·재혼자녀)를 둘러싼 재산문제’에 관한 상담이 62건, ‘기타 관계 간 재산문제’는 4건이었음.

### 2) 법률상담사례 분석 결과

☑ 법률상담사례 분석결과 재혼가족의 상속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혼부부는 부부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의 자녀 특히 전혼자녀들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재산과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분석 대상 상담사례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상속을 둘러싼 전혼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갈등이었음.
  -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가족 내에서 전혼자녀와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특히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대등한 지위에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재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즉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선택에는 재혼부부 당사자 및 전혼자녀와의 관계와 재산을 둘러싼 이해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각자 전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을 보유하고 각자의 전혼자녀가 있는 대등한 지위에서의 선택과 그렇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전혼자녀와의 상속갈등 회피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나타남.

■ 가족의 변화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족 내 불평등이 모두 나타나는 지점임.

📍 재혼가족의 상속 관련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혼 재혼부부와 사실혼 재혼부부에 있어 나타나는 이슈와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들의 경우 전혼자녀들과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법률상담사례도 이에 관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또한 관련 내담자 역시 재혼부부 당사자 뿐 아니라 재혼가족의 자녀들인 경우도 많았음.

▶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사망 후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충이 주된 이슈였음.

📍 법률혼 재혼 부부와 상속 문제

▶ 분석 대상 사례에서 법률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을 둘러싸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전혼자녀 간에 상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았음.

■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인 재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전혼자녀와의 이해의 대립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도 많은 것으로 보임. 법률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다 보니, 재혼남편의 전혼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재혼가족 내에서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남편의 장성한 전혼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권이 보장된다 하여도, 상속분할과 관련하여 갈등이 나타나기 쉽고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경우 고령의 여성 재혼 배우자들이 재혼 배우자의 사망 후 상속재산이 있다 하여 모두가 생계와 주거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롭지는 않음.

▶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 시 부부재산의 청산에 관한 내용이 현행 법제에는 없기 때문에, 상속 대상재산이 사실상 부부재산에 해당하고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어 이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전혼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와 공동상속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협의가 쉽지 않아 갈등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음.

■ 특히 황혼기의 재혼 배우자들은 전혼자녀와 갈등 관계에 놓이거나 혼인해소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실혼 재혼 부부와 상속 문제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 있는 재혼 배우자의 경우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해온 사례들이 주를 이루었음. 이 문제에 대해 사실혼 재혼부부의 자녀가 상담을 해온 경우도 있었음.

- ▶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재혼 배우자는 배우자 돌봄과 가사노동 등의 기여나 혼인생활에서 이룩한 자신의 몫을 인정받지 못한 채 혼인해소 후를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남.
- 이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을 둘러싼 전혼자녀와의 갈등으로 재혼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생존 배우자가 고령인 경우 취약성은 더 심각함.
- 문제는 배우자 사망시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부부재산 청산의 기회조차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자신의 정당한 몫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를 초래함.
- ▶ 노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황혼재혼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라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생계의 위협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와의 관계에 따라 생계가 좌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3. 정책제언

#### 📍 배우자 상속과 공동상속인

- ▶ 배우자 상속과 관련하여 현행 민법은 배우자 상속분으로 일정비율의 가산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을 뿐, 배우자 사망시 혼인재산 분할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민법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이러한 현행 배우자 상속제도 하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망에 따른 혼인 해소시에는 재산분할의 기회를 주지 않지만 부부관계의 파탄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사망시까지 해로하여 혼인 해소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재산을 분할 받을 기회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함.
- ▶ 재혼배우자의 고유재산이 전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전혼 이혼시 재산분할 또는 전혼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는 특히 전혼관계의 자녀들이 이 재산을 상속대상 재산으로서 재혼 배우자(계부모)와 공동상속 하는 데에 불만과 갈등이 발생함.
- 한편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해당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입장에서는 혼인공동재산에 해당되는 재산까지도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피상속인의 전혼자녀와 공동상속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는 배우자 상속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지만, 특히 재혼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전혼자녀가 혈연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이해의 대립이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음.

- ▶ 프랑스와 스웨덴은 상속 전에 먼저 배우자 사망에 따른 부부재산 청산이 이루어진 후 배우자 상속이 이루어지며, 독일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짐.
-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생존배우자에게 부부재산 청산에 더하여 상속에 있어서도 사회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매우 두터운 보호를 하면서, 재혼가족 등의 경우와 같이 사망배우자의 전혼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해의 조정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참조할 만한 부분임.

## ♥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 ▶ 재혼에서도 사실혼인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판례에 의해 사실혼 관계 해소 시(배우자 사망의 경우는 불가)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음.
- ▶ 사실혼은 경제적으로도 공동 재산을 일구며 생활하게 되므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부부 재산의 청산이 필요함.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많아도 사망한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는 무척 어려움.
- 생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등으로 특정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고, 더구나 소득활동이 아닌 가사, 육아 등에 종사한 사실혼 배우자는 더욱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임.
- ▶ 사실혼 일방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법원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가 법원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
- ▶ 한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4. 8. 28.자 2013헌바119 결정)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위 결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이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는 점,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은 앞으로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 개선방안

- ▶ 근본적으로 배우자 상속분 문제는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다시 말해 혼인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치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임.
- 사망에 따른 혼인해소시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부부재산의 청산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사실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면 황혼의 재혼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재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
- ▶ 현실적인 접근으로 모색을 해본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욕구와 이해는 유증이나 신탁 등의 사적 자치에 의하여 재혼 배우자 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재혼부부 중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배우자 사망시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문제에 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음.
- 나아가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 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적절한 선에서 미리 안정성을 담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연대용신탁제도의 활용은 특히 재혼의 사실혼 부부가 전혼자녀들과의 분쟁을 미리 피하고 재산귀속관계를 미리 정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을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으로 제언할 수 있음.

## 4. 기대효과

- 📍 재혼이 증가하는 혼인 · 가족에 있어서의 변화 및 이를 둘러싼 상속 이슈와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안을 제언함으로써,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